

스탈린의 언어와 정치: 일국사회주의의  
이론과 전술

Stalin's Language and Politics:  
Theories and Tactics of Socialism  
in One Country

< 대표저술 >

『10월혁명사』. 2004, 서울: 우물이있는집.

「소비에트학 연구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적 경향들: 현대적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4호.

관심분야 : 정치사상, 사회주의, 소비에트 정치이론 및 정치사

E-mail :duracus@hanmail.net

•이완중 (Lee, Wan-jong)

•학위취득대학 : 러시아연방과학원 러시아역사연구소

•현직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논문접수일 : 2008년 3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4월 2일

게재확정일 : 2008년 4월 16일

# 스탈린의 언어와 정치: 일국사회주의의 이론과 전술 \*

## <국문요약>

요시프 스탈린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물들 중 하나이다. 스탈린이 권력과 영광을 누린 1920년대 중반부터 1953년 사망 때까지 그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의 상징이었다.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독재체제를 낳았으며, 제2차 대전 후 그것은 반(反)자본주의 진영에서 사회 변화의 모범이 되었다. 소연방은 레닌이 수립했지만, 그 구조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안정시킨 사람은 스탈린이었다. 스탈린이 아니었다면 소련은 1991년이 아니라 그보다 수십 년 앞서 붕괴되었을지도 모른다.

스탈린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다. 그는 혁명적 맑스주의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맑스주의의 기본 교의를 토대로 자신의 독재적 성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냈다. 스탈린의 정치 전략과 전술들은 그의 현실 인식과 맑스주의적 세계관이 결합된 결과였다. 물론 이념상 그가 이론 이론적 혁신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조야한 발전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런 혁신마저 지적 성실함보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그의 언어와 이론들은 그의 정치를 잘 합리화했으며, 소비에트 인민들을 일국 사회주의의 건설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헌신케 했다.

### [ 주 제 어 ]

스탈린, 일국사회주의, 언어, 정치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 2005-073-BS0010).

## I. 머리말

1917년 10월혁명 이후 소비에트 사회는 국가자본주의, 전시공산주의, 네프, 위로부터의 혁명 시대를 거치며 발전되었다. 볼셰비키당의 이론과 실천에 따라 결과된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소비에트학 내에서 자주 배제되었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일방적 평가가 우선되었다. 혹자는 소비에트 체제의 진보성을 강조했으며, 혹자는 그것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다.

소비에트 체제의 비민주성은 선형적으로 규정되었다. 레닌과 트로츠키가 설교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과 영구혁명론으로 무장한 볼셰비키가 10월혁명을 통해 수립한 것은 계급독재 체제였다. “인민의 적”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결국 사회주의의 “승리”를 실현한 스탈린주의는 혁명의 시대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권력을 확립, 강화하려 했던 자코뱅적 의식의 표현이었다. 그 과정에는 억압과 강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열정과 감격 또한 존재했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한 고려 없이는 소비에트 국가사회주의의 발전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했던 스탈린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어렵다. 소비에트학 내 주요 사조인 전체주의론적 입장, 그리고 트로츠키즘적 시각들과 부하린주의적 견해는 스탈린주의적 “계급적 접근”만큼이나 사회주의 현실에 대한 가치중립적 연구의 진행을 제한했다. 20세기 전반 소비에트 사회의 정치상황 및 현재까지의 사회적 발전을 논리적 비약 없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탈린의 언어와 정치에 대한 편견 없는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스탈린 개인이나 그의 정책과 이념, 숙청, 전쟁 등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연구가 미국과 러시아 포함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영미권에서 나온 스탈린 관련 저작들, 예들 들면 1997년에 E. 랫진스키가 쓴 *Stalin: The First In-depth Biography Based*

on Explosive New Documents from Russia's Secret Archives; S. 몬테피오레의 2004년 작 *Stalin: The Court of the Red Tsar*; D. 머피가 2005년에 출간한 *What Stalin Knew: The Enigma of Barbarossa*; R. 서비스의 2005년 저작 *Stalin. A Biography*<sup>1)</sup> 등의 내용을 보면 스탈린에 대한 편견과 비난이 아직 소비에트학에서 작용하는 듯하다. 특히, R. 서비스는 스탈린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설명이나 상투적 비난을 배제하며 보다 공정한 접근을 시도하지만, 그도 역시 스탈린의 “심한 인격장애”를 지적함으로써 기존의 인식들을 깨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2006년 정성진이 출간한 『마르크스와 트로츠키』(한울)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대한 일방적 비판과 함께 스탈린의 구체적 정책이나 현실에 대한 사실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스탈린의 언어와 정치이다. 즉, 스탈린의 정치적 전략과 전술이 무엇이었으며 그가 어떤 이론과 언어로써 그것을 합리화하며 실현해갔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는 것은 그의 정치가 소비에트 사회에 강요한 변화와 그 방향 및 결과에 대한 침착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그 설명은 스탈린주의의 기본 방침인 일국사회주의의 이론과 정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연구대상 시기는 지면상 이유로 1930년대까지 국한된다.

## II. 일국사회주의론의 정치

### 1. 영구혁명론과 일국사회주의론

1924년 봄 스탈린은 자신이 쓴 『레닌주의의 기초(Об основах ленинизма)』를 당 기관지 《프라우다》에 연재했다. 여기에서 그

1) 이 책은 2007년 윤길순이 『스탈린 강철 권력』(교양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했다.

는 레닌주의를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보편 과학으로 규정하며 영구혁명론을 비판했으며, 소연방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 계획으로서의 일국사회주의론을 원초적 형태로 제시했다. 그는 당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했으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동참할 것을 레닌의 이름으로 요구하며 네프(신경제정책)을 합리화했다. 스탈린이 영구혁명론을 레닌주의와 차별하며 폄하했던 것은 트로츠키(Л.Д. Троцкий)와의 노선투쟁 때문이기도 했지만, 영구혁명론이야말로 소연방의 사회주의적 자력갱생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언어이자 의식이었기 때문이었다.

『레닌주의의 기초』에서 스탈린은 레닌이즘을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혁명 시대의 맑시즘”이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이론과 전술이며, 특수하게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이론과 전술”이라고 규정했다(스탈린전집 6권, 71). 스탈린에 의하면, 10월혁명이 승리하고 소비에트 권력이 노동자-농민의 정부로 나타난 것은 노동자와 농민의 제휴(스미츠크)를 기반으로 하는 레닌주의가 혁명운동의 이론이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영구혁명론은 맑스의 혁명론을 왜곡하고 있을뿐더러 “러시아혁명에서 농민계급이 지닌 중대한 역할과 혁명적 에너지를 과소평가하며, 결국 혁명 전망을 부정한 반(半)멘체비키 이론”이었다. 그것과 10월혁명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오직 레닌주의에 의거해 “모든 나라의 혁명을 진전시키고 지원하고 고취하기 위해 일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는 것이 볼셰비키당의 과제라고 스탈린은 역설했다.

스탈린은 사실을 왜곡했다. 10월혁명과 영구혁명론의 실질 관계는 레닌의 언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05년 러시아혁명 때 트로츠키는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를 지도하면서 “짜리 없는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목표는 짜리즘을 타도하고 즉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권력을 세우는 것이었다. 러시아 자본주의의 불균등결합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허약한 부르주아지와 상대적

으로 강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고 따라서 도시 노동계급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면서 트로츠키는 사회주의혁명 시대에 러시아혁명을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그것은 그렇게 제한될 수도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문제는 후진 러시아에서 노동자 독재권력이 유지되기에 그 사회경제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데 있었다. 이를 보완하는 논리가 영구혁명론이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과 영구혁명론은 하나의 조합이었고, 이것은 서유럽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임박했으며 자본주의가 곧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급진적 확신을 전제로 했다.

트로츠키를 비판하던 레닌이 1917년 봄 「4월테제」를 통해 임시 정부 타도 및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에 관한 명제를 제시한 것은 그가 영구혁명론에 동의했음을 뜻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소비에트에 집결한 노동자, 농민, 병사들에게 공장의 자주관리와 토지분배 및 종전(終戰)을 약속했고, 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소비에트 권력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10월혁명의 목표는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이었다. 이점에서 볼셰비키당의 정치적 지향은 병사, 노동자-농민계급 요구와 모순되었다. 「4월테제」는, 레닌의 표현에 따르면, “낡은 볼셰비즘”을 대체하는 “새로운 볼셰비즘”의 길을 열었지만, 볼셰비키 정권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극히 취약했다. 그럼에도 볼셰비키가 10월혁명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구혁명론 덕분이었다.

1921년 여름 제3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레닌은 이렇게 고백했다: “이미 [10월]혁명 전에,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자본주의적으로 더욱 발전한 다른 나라들에서 바로 지금, 아니면 적어도 매우 빠른 시기에 혁명이 시작될 것이며,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파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레닌전집 44권, 36).” 이런 인식은 볼셰비키당 지도부에 강박관념으로 작용했다. 세계사회주의 혁명이 임박했다는 확신은 10월혁명의 동기가 되었지만, 서유럽 혁명이 지연되면서 영구혁명론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묵

시록이 되었다. 사회주의를 위해 10월혁명과 영구혁명론의 연관이 거부되어야 했으며, 그를 위한 시도가 사회주의적 자력갱생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이었다.

1924년 12월 스탈린은 「10월혁명과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에서 자력갱생의 논리를 이렇게 확장했다: “10월혁명의 국제적 성격을 망각하면서 일국에서의 혁명 승리를 순전히 민족적인 것으로, 민족적 현상으로서만 선언하는 자들은 옳지 않다. 또한 10월혁명의 국제적 성격을 기억하면서 이 혁명을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소극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자들도 옳지 않다(스탈린전집 6권, 400-401).” 전에 스탈린이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면, 이제 그는 10월혁명을 세계혁명의 시작이자 전제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양자 관계를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그 결과 스탈린의 이론은 영구혁명론과의 분명한 차이를 획득했다. 10월혁명은 서유럽 혁명으로부터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10월혁명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당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 일국사회주의론의 완결성을 더욱 높여야 했다. 1925년 말 스탈린은 『레닌주의의 문제(К вопросам ленинизма)』를 통해 자력갱생의 논리를 최종적으로 수정, 완성했다. 얼마 전까지 그것에 남아있던 영구혁명론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그는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사회 건설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세계혁명의 문제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했다. 다른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승리는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할 뿐이었다. 타국에서의 사회주의 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소연방에서 사회주의 승리 가능성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그리고 그 권력을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계급 간 모순의 해결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보

장되었다(스탈린전집 8권, 62-65).

트로츠키즘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그것도 세계혁명의 완성에서 자기실현을 발견하는 “영구한 혁명”을 위한 극좌적 이념이다. 반면 스탈린이즘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권력이 수립된 사회에서 등장한 사회주의 건설의 이론과 전략이며, 전술이었다. 여기에 양자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소연방 역사에서 일국사회주의론이 가졌던 의미를 폄하하지만, 그것은 스탈린이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소비에트 인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콜럼부스의 달걀”이었고, 소연방의 역사과정을 규정한 청사진이었다.

스탈린은 『레닌주의의 문제』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논의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당 독재뿐 아니라 “수령(ВОЖДЬ)의 독재”와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지노비예프를 비판했다. 스탈린에 의하면, 인민이 의식하는 바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당과 지도자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체제에서의 중추 지도세력이라는 영광스런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었다(스탈린전집 8권, 60). 인민에 대한 지도방식과 관련해 그는 제10차 당대회에서 레닌이 한 연설을 인용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설득해야 하며, 다음에 강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설득하고, 다음에 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사전에 인민을 설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을 때 성공적으로 강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레닌의 언명을 지적했다. 스탈린은 그렇게 해야만 당의 단결이 보장되고, 비로소 인민에 대한 지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바로 “설득과 강제”라는 공식이야말로 스탈린이즘의 실천에 있어서 기본이 되었던 지도방식이었다. 그러나, 계급적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한 볼셰비키 정권이 자신의 존재 유지를 위해 얼마나 폭압적으로 “설득과 강제”를 행사했는지는 10월혁명 후 전시공산주의까지의 역사가 증언한다. 또한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 기반이 결핍된 상태에서 급속한 공업화로써 사회주의적 자력갱생을 추진하는 스탈

린주의가 소비에트 인민들에게 미증유의 땀과 피를 강요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 2. 사회주의적 축적론과 공업화

1925년 봄 부하린(Н.И. Бухарин)이 농민에게 외친 “부자가 되시오!”라는 슬로건은 당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즉각 크롭스카야(Н. К. Крупская)는 네프의 전도사에 반대하는 글을 발표했다. 스탈린 역시 부하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이 슬로건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중략] 우리의 슬로건은 바로 사회주의적 축적입니다. 우리는 농촌의 복지 향상을 가로막는 행정적 장애들을 제거합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모든 종류의 축적을, 사적-자본주의적 축적도, 사회주의적 축적도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당은 사적 축적을 자신의 슬로건으로 삼는다고 전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축적에 관한 우리 구호의 실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네프를 확대시키며 사적 축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스탈린전집 7권, 153).”

네프와 더불어 사회주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국가재정의 확충과 함께 정권의 경제운영력이 강화되었다. 1927년 12월에 열린 제15차 당대회는 이른바 당의 총노선을 확정했다. 최대로 급속한 공업화의 당위성과 가속화된 중공업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되었고, 농업 집단화 방침이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계획경제 원리가 강화되어야 했다.

피치레트카, 즉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1929년 5월 제5차 소비에트 대회에서 승인되었다 시기적으로 그것은 1928년 10월부터 1933년 9월까지의 기간을 포괄했다. 경제계획에 따라 5년간 공업총생산은 136%, 농업총생산은 55%, 국민소득은 103% 증대되어야 했다. 스탈린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속도의 경제성장을 기획하고 있었다. 놀라웠던 것은 중공업 생산의 3.3배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총투자 자본의 78%를 생산수단의 생산 분야로 집중시키고 있었다는 사

실이다.<sup>2)</sup>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사회주의적 경쟁”을 위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프라우다》를 필두로 각종 언론매체 및 당과 공산청년동맹(콤포스몰), 노동조합 기관들은 노동자의 발의에 의한 모범적 생산 사례들을 선전했으며, 노동창발성을 발휘할 것을 고취했다. 그러면서, “경제고지”의 선점을 위한 돌격대 운동, 할당된 계획 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담은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대응계획”의 채택운동, “연중무휴제”, 생산량과 생산성 등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추월하자!”는 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적 경쟁의 형태들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1929년 가을 “5개년계획을 4년 내에 완수하자!”는 구호가 등장했다. 사회주의적 경쟁 운동은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대중의 혁명적-낭만적 기분을 확산시켰고, “돌격”, “강습”, “돌파”를 통해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볼셰비키식으로” 등의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1929년 10월 이후 미국은 대공황으로 경제가 마비되어 갔고 독일에서는 약600만 명이 실업상태에 빠지면서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나치)당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던 때, 소연방에서는 지리를 바꾸는 공업화의 대역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그니토고르스크, 첼랴빈스크, 스탈린그라드 등에 거대 공장들이 건설되고, 드네프르강 하구에는 국내 전력생산을 5배 증대시킬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시행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새 광산들이 개발되었고, 그루지야에도 중공업 공장들이 들어섰다. 각 도시는 계획에 따라 현대적 면모를 갖춰갔으며, 특히 모스크바에는 지하철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던 그때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도약을 시작하고 있었다. 소연방에게 1929년은, 스탈린이 10월혁명 12주년을 기념해 쓴 글의 제목처럼,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2) См.: КПСС в резолюциях и решениях съезд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пленумов ЦК, т.4, с.201-202.

1931년 2월 스탈린은 전국사회주의공업일꾼협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볼셰비키가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고 했다. 원래 계획에 따라 32% 증대되었어야 할 1930년도 공산품 생산이 25% 증대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스탈린은 1931년도 목표로 설정된 45%의 공업성장을 완수할 것과, 기간공업 분야에서 5개년계획을 4년이 아니라 단 3년 만에 실현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사업에 있어서의 “볼셰비키식 템포”의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선진국가들에 비해 50-100년을 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격을 10년 만에 뛰어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분쇄할 겁니다(스탈린전집 13권, 39).”

속도문제만이 아니었다. 스탈린은 연설을 통해 당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볼셰비키는 당연히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볼셰비키 자신이 전문가가 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의] 건설기에는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스탈린전집 13권, 41).” 본질적으로 첫 번째 피칠레트카는 새로운 건설을 위한 계획이었다. 공업의 양적 성장과 병행해 그 질적 성장도 요구되었다. 기술 발전과 노동의 조직화 수준 향상, 나아가 경제 합리화 없이는 불가능한 집약적 산업화의 필요성은 산업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다. 그를 위한 선전-선동의 집약체로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국영 공업은 계획보다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사영 농업은 피칠레트카의 질곡이 되었다. 스피츠카를 통해 사회주의적 축적을 실현한다는 스탈린의 구상은 자주 농민의 도전에 시달렸다. 농촌에서의 곡물조달은 도시민과 병사들의 식량배급에 필수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업화를 위해서도 긴요했다. 볼셰비키 정권은 1920년대 중반부터 곡물 수출을 통해 얻은 경화로 공업화에 필요한 기계, 기술 등을 수입했다. 최대한의 공업화 계획은 최대한의 곡물조달을 요구했으며, 후자에서의 차질은 계획 자체를 붕괴시켰다. 곡물조달을 위한 정상적 수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스탈린 정권은 “협상가격차”, “상품기근” 등의 용

어로 농촌과 도시의 경제악순환을 설명했다. 가격정책과 더불어, “투기적 거래에 종사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산품의 가격 상승을 조장하는” 네프만들의 행위가 집중 단속되고 부농(쿨락)에 대한 비난이 강화되었지만 악순환은 해결되지 않았다.

1927년 말 도래한 곡물조달사업의 위기는 전시공산주의적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약3만 명의 공산당원이 전국의 농촌으로 급파되었고, 이들은 무단으로 가택을 수색하여 “잉여곡물”을 징발했다. 그에 협력하는 빈농들에게는 몰수된 곡물의 25%를 차지하는 특전이 부여되었다. 스탈린이 직접 시범을 보인 “우랄-시베리아 방식”을 통해 볼셰비키 정권은 석 달 만에 곡물조달 전선에서의 위기를 해소했다.

### 3. 계급투쟁의 격화 이론과 농업 집단화

1928년 7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스탈린은 총노선의 이론적 합리화를 시도했다. 네프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독특한 표현이며 수단이라고 규정한 그는 바로 계급투쟁의 문제를 제기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란 새로운 조건들 하에서 계속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이라는 레닌의 테제에 의거하며 스탈린은 네프 하에서 계급투쟁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빈농에 의지하고 중농과 연대하며 부농과 투쟁하라는 레닌의 슬로건은 농촌에서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의 정책과 무관하게 계급투쟁의 격화가 필연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소멸하는 계급이 저항을 포기하며, 자발적으로 자기 진지를 내주는 일은 과거에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계급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로의 전진이 투쟁과 사회적 동요 없이 이루어지거나 과거에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회주의로의 진행은 이 진행에 대한 착취분자들의 저항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으며, 착취자들의 저항은 계급투쟁의 불가피한 격화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스탈린전집 13권, 172).” 그는 부하린이 1925년 개진한 이론, 즉 사회주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적들은 점차 뒤로 밀려 물러설 것이며, 다음에 “전혀 예기치 않게” 부농이나 빈농, 노동자나 자본가들 같은 모든 사회적 그룹이 투쟁과 저항 없이 돌연 사회주의 사회의 품안에 놓일 것이라 전망하는 이론을 비웃었다.

1928년 여름 스탈린의 총노선에 대한 우파의 비판이 거세졌다. 동년 9월 30일 부하린은 《프라우다》에 「경제학자의 시기(Заметки и экономиста)」를 게재하며 “초(超)산업화” 정책과 “부농계급에 대한 공세 강화”를 비난했다. 그는 “기초적 경제균형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 이행기 경제의 발전에 있어 절대 법칙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려 했다. 생산과 소비의 제 분야 및 생산의 각 분야들 상호간 다이나믹한 경제적 평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볼셰비키당 지도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트로츠키주의자들만이 산업발전이 근본적으로 농업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하린의 균형이론은 “어느 정도 위기를 배제하는 사회주의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었다. 계급투쟁의 격화 이론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그것은 당내 우파의 이론적 기반이었고, 부하린주의의 이론적 근간이었다. 스탈린에 따르면, 그 이론은 각 경제 부문의 배후에 계급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운동은 《누가-누구를》의 원칙에 의한 격렬한 계급투쟁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스탈린은 확대재생산의 가능성이 없는 소농민경제와 같은 농업적 토대를 갖고서는 사회주의적 산업화를 빠른 템포로써 계속 추진할 수 없다고 당원들을 설득했다.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그는 균형이론이 “유토피아적이고 반(反)맑스주의적인” 것이라 주장했다(스탈린전집 12권, 144-146). 1928년 가을 우익편향을 비판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1년 이상 계속되었다.

1929년 12월 전국 맑스주의농학자협의회에 참석한 스탈린은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경제에 관한 부하린의 균형이론과 “방입론”, 차야노프가 “설교하는 소농민적 영농의 안정성”에 관한 이론, “10월혁명명은 농민에게 아무 것도 준 게 없다는 그로만의 이론” 등이 세간에 유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이 바로 협의회 참가자들에게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왜 “맑스-엔겔스-레닌의 천재적 저작들”을 활용하지 않는지 의문을 표하며 청중을 힐난했다: “맑스-레닌의 이론에 의거해 부르주아 이론들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함 없이는 계급의 적들에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습니까?” 이어 스탈린은 농업의 “위대한 전환”에 관한 이론적 합리화를 시도했다. 그는 엔겔스가 「프랑스와 독일의 농민문제」에서 농업 집단화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서술한 것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연방에는 사적 소유가 대신 사회화가 실현되어 있었다: “바로 여기[즉, 사회화]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빠른 속도로 전개될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는 레닌의 「협동조합론」을 인용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국가에 속하는 토지와 생산수단을 토대로 결성된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은 계급적대가 배제된 사회주의 경제의 한 형태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최고형태로서의 집단농장”의 건설은 바로 사회주의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동농장이 주어지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확보되는 것”이 그릇된 생각임을 지적했다. 콜호즈는 형식이었다. 사회주의 승리를 위해서는 콜호즈 농민들을 개조하고, 그들이 가진 개인주의적 심리를 교정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진정한 일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스탈린전집 12권, 142-165).

그것은 스탈린의 정책이 결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고백이었다.

1929년 가을 곡물조달은 노골적인 부농해체정책과 병행했다. 말미 부농해체이지 실제로 부농계급의 박멸이 추진되었다. 스탈린은 농민의 정치적 각성과 운동의 대중성을 농학자들 앞에서 자랑했다: “지금 부농해체는 전면적 집단화를 실현하고 있는 빈농과 중농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스탈린전집 12권, 170).”

1930년 1월 5일 당중앙위원회는 ‘집단화의 템포 및 협동조합 건설에 대한 국가지원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필사적으로 부농계급에 선전포고 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라”는 명령을 각급 당조직에 하달했다. 이어, 동년 1월 30일 정치국은 “전면적 집단화 지역에서의 부농 박멸을 위한 조치들에 관해” 당중앙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을 승인했다. 그에 따라 집단화 지역에서 토지 임대가 폐지되고 고용노동의 사용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농들로부터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농촌의 반(反)혁명분자들, 즉 소비에트 권력에 테러를 조직한 자들은 정치사범으로 체포되고 진압되었으며, 이들의 가족은 제1범주로 분류되어 북극이나 오지로 추방되었다. 집단화에 적극 반대한 부농들과 과거의 “반(半)지주들”은 가족과 함께 제2범주에 해당되어 시베리아 등의 변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나머지 대다수 부농들은 “해체”된 다음 제3범주로서, 집단농장의 경계 밖에 특별히 할당된 곳에서 거처를 마련해야만 했다.

명령을 “불체비키적으로”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부농에 반대하는 빈농과 머슴들의 정치적 적극성을 고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1929년 여름 경, 콜호즈에 편입된 농가는 전체(약 2,500만 호)의 2%를 웃돌았다. 1930년 1월 하순 전체 농가의 약17%에 해당하는 430만 호가, 2월 하순에는 약59%인 1,400만 호가 집단화되었다. 한 달 만에 970만 농가가 콜호즈에 편입되었다.

이런 과정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었다. 충실한 물질-기술적 기반과 충분한 수준의 노동 조직화가 결여된 상태에서 콜호즈는 생산성

높은 “거대 곡물공장”이 되기는커녕 “엔진 없는 거대한 비행기”에 불과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1930년 3월 《프라우다》에 스탈린이 쓴 「성공에의 도취(Головокружение от успехов)」가 게재되었고, 여기에서 그는 “힘으로 콜호즈를 이식한다”는 것이 불가능 일일 뿐 아니라, 집단화운동의 자발성 및 상이한 지역조건들에 대한 배려를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또 반동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스탈린전집 12권, 191-199). 전면적 집단화운동에 가해지던 강제들이 조금 이완되자 곧 콜호즈에서의 농민 이탈이 시작되었다. 1930년 여름 경 전체 농가의 23.6%에 해당되는 약600만 호만이 콜호즈에 잔류했다. 곡물조달계획이 망가졌을 뿐 아니라,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자유화 바람에 “곡물공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콜호즈의 많은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는 것들이었지만, “곡물공장” 자체가 와해되면 소비에트 권력의 사회주의 건설 계획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1930년 가을부터 다시 집단화 운동에 박차가 가해졌으며, 1931년 여름 전체 농가의 52.7%가 집단농장으로 포섭되었다.

집단화 캠페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들, 즉 “거대 국영농장”, “기계-트랙터관리창(엠테에스)”, “전면적 집단화 지구”, “예약수매” 등의 용어가 일상화되었다. 물론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등장한 신조어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그것들 속에는 농촌생활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진보가 함축되어 있었다. 각 낱말은 실제적 삶의 변화를 반영하였고, 낡은 기술, 낡은 경제양식과 계급관계, 낡은 생활조건이나 전통 등 농촌의 오래된 기반이 급진적으로 타파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콜호즈 등에서 사용되는 트랙터 및 각종 농업기계의 배급과 관리를 집중 담당하는 “엠테에스”라는 축약어 하나가 상징했던 것은 바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시작된 농촌혁명이었다.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하여 스탈린이 가졌던 강박관념은 그로 하

여금 집단화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를 등한시하게 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목표의 달성이었으며, 그것을 자부심을 가졌다. 그는 콜호즈 건설운동의 성공을 이렇게 과장했다: “[그것은] 실천이 《과학》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하에서는 《과학》이 실천에서 배우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는 《과학》의 향의를 일축했다(스탈린전집 12권, 129).” 즉, 그의 생각에 소비에트 인민들의 성공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1932년 가을 전면적 집단화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전체 농가의 61.5%, 전체 농지의 약70%가 콜호즈로 통합되었다. 농업 집단화에 관한 5개년계획의 목표를 겨우 3년 만에, 세 배나 초과 달성했다. 그에 따라 볼셰비키 정권이 확보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피칠레트카의 완수를 위해 필요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소비에트 러시아는 농업구조 재편의 직접적 결과로써 야기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다.

#### 4. 사회주의 건설비용과 “승리자”

1931년 가을 “가뭄과의 투쟁은 풍작을 위한 투쟁이다!”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곡물전선”에서의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1932년 8월 제정된 ‘사회주의적 소유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곡물 탈취자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했으며, 이들에게 “준엄한 혁명적 책임”을 지울 것을 경고했다. 콜호즈의 “범죄분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어졌다. “잉여곡물”은 모두 징발되었고, 농민들은 굶주림에 방치되었다. 피칠레트카의 볼셰비키적 완수를 위해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사지로 내몰렸다. 특히 1932년 곡물조달의 위기와 병행한 대 기근은 농촌에서 수백만의 인명이 스러지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런 사실에 대해 침묵이 강요되었다.

비극의 발생은 1931-32년의 흉작 때문이었고, 이는 가뭄뿐만 아

나라 전면적 집단화와 직접 연계된 원인들이 작용한 결과였다. 정발된 식량은 도시에 겨우 공급되었고, 참혹한 기근이 노동자들을 덮치는 상황은 방지되었다. 그러면서도 볼셰비키는 기계설비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대로 식량을 수출했다. 기근은 은폐되었다 이 무렵 듣기에 따라 감격스러운 새로운 슬로건이 등장했다: “볼셰비키가 공략할 수 없는 요새는 없다!” 이런 슬로건 속에, 5개년계획의 신성불가침성 속에 2년간의 흉작이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재했다.

1933년 1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스탈린은 제1차 피츨레트카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음을 선언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노동자 및 집단농장원의 자기희생과 열정, 당의 확고한 지도력, 그리고 위대한 발전가능성을 내포한 소비에트 체제의 장점과 우월성이 볼셰비키에게 4년 3개월 만의 “승리”를 보장한 원동력이었다. 1933년 1월부터 시작된 제2차 피츨레트카로 화제를 옮긴 스탈린은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연간 공업성장률이 22%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13-14%의 성장률이 계획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건설사업보다 이미 조성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설비와 기술을 제대로 취득하는 것이야말로 제2차 5개년계획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노동자와 기술 인력의 작업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설비를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일은 건설보다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공업화 템포가 조금 지체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스탈린전집 13권, 185-186).

1933년 기후조건은 농업에 매우 유리했다. 농촌에서 정치적 조직성이 강화되었고 또한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콜호즈와 슈호즈에서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소연방은 완전한 풍작을 경험하게 되었다. 농업의 사회주의적 재편이 완료된 후의 첫 해인 1933년은 곡류 및 공예작물 생산에 있어서 도약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이었다. 곡물조달의 연차계획은 동년 12월초에 완수되었고,

결국 1933년 볼셰비키는 모두 14억 푸드의 곡물, 즉 1932년에 비해 2억 7천만 푸드가 더 많은 양의 곡물을 확보했다. 호진된 경제상황은 그 해 중반부터 뚜렷이 감지되었고, 이는 사회에 드리워진 무거운 분위기를 신속히 제거함과 동시에, 스탈린의 총노선에 대해 당의 일각에 존재하던 의구심과 불안감, 정치적 긴장감을 순식간에 해소시켰다. 고통을 인내하던 소비에트 사회는 농업문제가 해결되면서 순식간에 환한 세상으로 변모했다. 경제의 사회주의적 재편이 완료되었으며, 그 감격적 결과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신문 등에 옛 반대파에 속했던 인사들이 바치는 스탈린 찬가가 자주 등장했다. 또한 한 번 더 사회주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스탈린에 요청했던 지노비예프나 카메네프 같은 인물들이 속속 유형지에서 돌아와 당에 복귀했다. 공공연하게 “볼셰비키의 승리”가 선언되었고, 이와 함께 스탈린에 대한 숭배분위가 급속히 고조되었다. 드디어 1934년 초 “당의 수령이며,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강철 같은 지휘관이며, 세계 첫 번째 사회주의 사회의 위대한 건축가인 스탈린 동무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경배” 속에서 전연방볼셰비키공산당 제17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제17차 당대회는 당시 《프라우다》의 표현대로 “승리자”들의 잔치였다. 스탈린의 당내 위신이나 정치적 비중, 그리고 그의 개인적 권위가 한껏 고양되었다. 당대회는 요시프 비싸리오노비치 스탈린에 의해 추진된 총노선의 승리를 기념하는 화려한 축제였으며, “현명한 스승이며 수령”인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찬사를 바치는 장엄한 무대였다. 여기에는 얼마 전까지 수령의 정치적 경쟁자였으며 이념상의 적수였던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라테크, 프레오브라젠스키, 부하린, 리코프, 톱스끼 등의 인물들도 참여했다. 그들 모두는 당원들 앞에서 재차 자신의 과오를 참회했으며, 수령의 정치적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에 관해 발언했다. 완전히 당위에 올라선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가 확립되었다.

### III.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략·전술

#### 1. 간부 이론과 대숙청

제17차 당대회 이후 획기적 변화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목격되었다. 소비에트 경제에서 상품화폐관계가 갖는 사회주의성에 관해 다양한 설명이 등장했다. 그러면서, “부유한 삶을 맞이하자!”라는 슬로건이 1934년을 장식했다. 그해 말, “엔테에스”와 슈호즈에 설치된 정치부(политотдел)가 철폐되었고, 1935년 1월부로 양곡배급제가 폐지되었다. 농촌에서의 비상독재기관인 정치부를 없앤다는 것은 농업 안정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업에서는 개수임금제가 정착되었고, 당원들에게 의무로 부과되던 급료상한제가 폐지되었다. 소비재 상품의 종류가 보다 다양화되었고, 심지어 테니스, 재즈, 폭스트롯 등 이전에는 배척되던 부르주아적 풍조들이 유행했다.

1935년 5월 스탈린은 붉은군대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전에 우리는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그것은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중략] 기술을 지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술은 죽은 겁니다. 기술을 지배하는 사람이 선두에 있는, 그런 기술이 기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당연히 가져올 겁니다. [중략] 바로 그 때문에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이고, 간부이며, 기술을 구사하는 노동자들인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기술 분야에서 궁핍했던 이미 지난 시절을 반영하는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낡은 구호는 이제 마땅히 새로운 구호로,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구호로 교체되어야 합니다.”<sup>3)</sup> 그렇게 해서, 기술을 관리하는 간부진의 조속한 육성을 당의 당면과제

3) 《Правда》, 6 мая 1935 г.

로 선언한 직후 스탈린은 각급 “당조직에 불체비키적 질서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동년 5월에서 10월까지 숙청작업이 본격 진행되었고, 15,000명 이상의 “인민의 적”이 당에서 제명되며 체포되었다.

1936년 8월 1일 《프라우다》는 “파시즘은 전쟁! 사회주의는 평화!”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극히 심각한 불안감이 점점 더 인류의 근로자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세상에 전쟁의 먹구름이 감돌고” 있음을 알렸다. 스탈린이 잡고 있던 화두는 전쟁이었다.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이 등장한 후 민족사회주의(나치즘)의 위협을 실감한 스탈린은 전쟁 대비에 전력을 경주했다. 그를 불안케 한 것은 1934년 12월 키로프 암살사건 이후 더욱 활발해진 “제국주의 첩자들의 암약”이었다. “제5열”의 색출 없이 후방의 안정이 있을 수 없었다.

1936년 1월, 독일에서 이주한 공산주의자 올베르크(B.П. Ольбергер)가 체포된 일을 계기로 “인민의 적 테러리스트 센터”의 존재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 스미르노프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反)트로츠키-지노비예프-카메네프-게슈타포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강철 같은 규율과 혁명적 경계심”이 “불체비키의 법”으로 선포되었다. “당의 단결”과 그 통일성이 강화되어야 했다. 사건은 부하린 등 옛 우파 지도자들과 라데크, 파타코프 등 옛 트로츠키주의자들로 확산되었다. 또한 동년 11월, 쿠즈바스 광산에서 적발된 “반(反)혁명 트로츠키파 유해 그룹”에 대한 공개 재판은 1928년 3월에 돈바스에서 발생한 샤흐티 사건을 연상시키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1937년 1월에는 소위 “트로츠키파 반(反)소비에트 병립 센터” 관련 사건에 대한 공개 재판이 시작되었다.<sup>4)</sup>

1937년 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이례적으로 열흘

4) См.: Реабилитация.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30-50-х годов, с.171-190, с.215-216.

이상 계속되었다. 다뤄진 의제 및 발언자 수에 있어서 당대회에 거의 뒤지지 않았다. 여기서 ‘당생활의 결함과 트로츠키파 및 기타 양면주의자들의 박멸 방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문을 들고 단상에 오른 스탈린은 당원들이 “경제 캠페인과 경제건설전선에서의 큰 성공에 몰두”한 나머지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망각했다고 질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첫째, 자본주의적 포위가 존재하는 동안 “외국 요원들이 소연방 후방에 잠입시킨 유해분자, 스파이, 교란분자 및 암살자들”이 국내에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 둘째, “유해분자, 스파이, 교란분자, 암살자들의 흉폭하고 무원칙한 도당 “으로 변신한 트로츠키즘이 현재 외국 첩보기관의 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소비에트 권력의 적 트로츠키주의자들이 가진 힘은 그들이 당원증을 갖고서 신뢰를 악용하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기만하며”, 소연방의 적들에게 국가적 기밀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권리가 볼셰비키에게는 없었다.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인민의 수령”은 “지도적 당간부들의 이데올로기적 수준과 정치적 단련성을 높이고, 등용을 기다리는 젊은 인재들을 간부진으로 합류시킬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으며, 그를 통해 우리는 진정 레닌식으로 우리 간부들을 양성하고 또 양성해야 합니다. 당의 말단조직에 있는 102,000명의 제1서기, 3,500명의 지구(당)서기, 200여 명의 시(당)서기, 100여 명의 주(당)서기, 그리고 민족공산당 중앙위원회야말로 재교육되고 완전무결하게 되어야 할 지도적 간부들인 것입니다.” 5)

1937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각급 당 서기 전원에게 유능한 부(副)서기 두 명을 선발하여 그들을 순차적으로 “학교와 재교육장, 강습소, 레닌강습원”으로 파견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1937년 5월까지 “모든 당조직에서 당 기관원 선거를 실시할 것”도 의결했다. 이어 전원회의는 내무인민위원회(엔카베데)가 인민의 적을 색출

5) См.: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95, №11-12, с18.

함에 있어 최소 4년을 지체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소연방 내무인민위원회는 트로츠키파 및 기타 파시즘 요원들을 적발하고 분쇄하는 과업을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반(反)소비에트 활동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진압할 것”을 예고했다.6)

“볼셰비즘을 숙지하자!”는 슬로건과 더불어 “간부의 단련”을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1937년 5월 실시된 당 기관원 선거 결과는 60-70% 대의 재선률로 나타났다. 그것은 “당 간부들의 근간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것이라 평가되었고, 결국 선거가 “볼셰비즘의 위대한 힘”을 입증했다고 선전되었다. 이 무렵, 투하첵스키(М.Н. Тухачевский), 야키르(И.Э. Якир) 등 “현행범으로 체포된 8명의” 군 최고수뇌부 장성을 스파이 혐의로 재판에 회부한다는 검찰 발표는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1937년 6월 소연방 최고법원 특별배심법정은 비공개 재판을 열고 “붉은군대 내 트로츠키파 반(反)소비에트 군사조직” 사건을 심리했으며, 피고인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곧, “인민의 적”과의 투쟁은 결정적 국면에 진입했다. “삼인위원회”가 각 공화국과 주(州)에 설치되었다. “삼인위원회”는 각 공화국의 내무인민위원회나 내무인민위원부의 주 책임자, 해당지역 당서기, 그리고 공화국이나 주(州)의 검사 등 세 명으로 구성되었다. “삼인위원회”는 비상권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판결을 내렸고, 총살까지 포함하는 형의 집행을 임의로 명령했다. 대숙청은 고도의 생산성을 과시하며 전개되었다. 1938년 1월 27일 《프라우다》는 이렇게 보도했다: “최근 한 해 동안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地區)와 주(州)에서 연방 및 공화국 인민위원부의 지도적 업무에 발탁되었다. 그야말로 10만 명 이상! 이 수치 하나가 우리나라의 위대한 도약과 위대한 스탈린적 승리의 표현인 것이다. 인민들 가운데서 당원, 비당원 선구자들을 발탁하여 지도적 업무로 중단 없이 등용하는 것은 레닌-스탈린당의 정책적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

6) См.: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95, №2, с.25.

이다.” 1937-38년 볼셰비키당은 동시에 세 개의 작전을 전개했다. 그것은 옛 반대파들을 섬멸하기 위한, 그리고 “반(反)소비에트분자”나 불순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끝으로 젊은 소비에트 간부들을 등용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대숙청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운명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신상기록 자료에 의해 결정되었다. 혁명 이전의 멘셰비즘, 사회혁명당 경력, 제정시대의 이력, 내전기 활동사항, 트로츠키파 경력이나 지노비예프파, 노동자반대파 등등의 가담 정도, 우파에 대한 지지 여부, 당에서의 제명사실 유무, 계급적 출신성분, 전과 기록, 그리고 피의자와의 친인척 관계나 친분관계 혹은 단순한 사업상의 관계 등의 기준들이 총살형에 처해지거나 수용소로 보내지는 근거로서 내무인민위원부(엔카베테)와 “삼인위원회”에 의해 활용되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 피의자는 무죄임을 입증해야 했으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개 유죄임이 확정되었다. 스탈린은 “사회주의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단결”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인민의 적”을 적발하고 절멸함에 있어 “전 인민의 적극적 도움”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정책 변화는 1938년 4월부터 감지되었다. 1938년 8월 베리아(Л. П. Берия)가 엔카베테의 부책임자 자리에 임명된 것은 대숙청을 수습하기 위함이었다.

스탈린이 개진한 논리에 따르면, 대숙청의 긍정적 결과는 “간부의 단련장”으로서 당이 “유해하고 적대적인 분자들”로부터 정화됨으로써 더욱 강인해졌으며, 소비에트 사회의 “균질성과 내부적 단결”이 실현된 덕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붉은군대의 후방과 전선(戰線)은 더욱 강고해 질 것이라는 데 있었다. 볼셰비키당은 새롭고 젊은 간부들을 발탁함으로써 완전한 인적 쇄신을 이루었다. 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 흐루쇼프(Н. С. Хрущёв)는 격한 분노를 토로했다.<sup>7)</sup>

7)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스탈린의 만행을 조사하여 196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37-38년에 137만 2,392명이 체포되었고, 그들 가운데 68만 1,692

물론, 스탈린의 입장은 달랐다. 제18차 당대회에서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제18차 대회에는 약 160만 명의 당원이 대표되어 있고, 이는 제17차 대회 때보다 27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나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더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당이 추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sup>8)</sup>

## 2. 국가사회주의론의 정치

1936년 11월 스탈린은 새 헌법안을 소비에트 대회에 보고하면서 “소연방에서 이미 공산주의의 초기 단계, 즉 사회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혁명의 문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논쟁을 유발했다. 세계혁명을 언급하는 자는 비판 대상이 되었고, 트로츠키주의자의 낙인이 찍혔다. 스탈린은 1938년 2월 12일자 《프라우다》에 자신의 일국사회주의론을 해명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가 내린 규정에 의하면,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 문제는 두 개의 상이한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국내적 관계의 문제, 즉 계급관계의 극복과 완전한 사회주의의 건설 문제”이며, 둘째는 “국외적 관계의 문제, 즉 군사적 개입 및 구체제로의 복고 위험성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소연방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국제적 관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스탈린은 “사회주의의 최종적 승리가 오직 국제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적 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방 국가들의 노동자계급과 소비에트 인민들 사이에 형제

명이 총살되었다. См.: Источник, 1995, №1, с.120.

8) См.: Восемнадцатый съезд ВКП(б).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с.28.

적 유대를 더욱 강화시켜야 했다. 그럼에도 소연방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은 결국 소비에트 인민들 자신의 몫이었다. 스탈린은 요구했다: “우리 붉은군대와 붉은함대, 붉은비행대, 국방비행화학건설후원회를 전력을 다해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 모두는 군사적 침공 위협에 직면하여 어떠한 《우연성》도, 외부의 적들이 부리는 어떠한 간책도 우리를 불의에 습격할 수 없도록 전투준비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938년 스탈린이 설명한 일국사회주의론에 담긴 명제가 1926년 『레닌주의의 문제』에서 제기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언제라도 그는 소연방의 존재의미를 세계혁명에 종속시키지 않았다. 그의 이론은 심지어 서유럽 사회주의운동이 “세계혁명의 기지인 소연방”에서 사회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기도 했다. 물론 그것은 스탈린이 사회주의를 소연방에 국한시키려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레닌이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라는 국가체계를 구상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세계혁명을 위한 대책이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일국사회주의론에는 하나의 변화만 있었다. 1938년 스탈린은 “승리한 사회주의”에 대한 국제적 위협을 인식하게 해주는 “자본주의적 포위”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자기 이론의 무오류성을 확인했다.

사회주의 국가 문제와 관련하여 당내에는 맑스주의 이론과 볼셰비키의 실천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볼셰비키 정권은 국가권력과 인민 사이의 대립에 있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배관계들을 청산해버림으로써 인민생활의 전 영역을 직접적 형태로 포섭했다. 스탈린의 관점에 의하면, 소비에트 사회의 사회주의성을 규정하는 최종적 심급이 바로 국가였으며, 따라서 국가의 완전한 발전은 자연적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발전으로 이해되었다. 문제는 그것이 맑스-엔겔스의 교의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는 사실에 있었다. 볼셰비키는 엔겔스가 『반(反)듀링론』에서 제시

한 국가 소멸에 관한 테제를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 중에는 10월혁명 직전 레닌이 『국가와 혁명(Государство и революция)』을 통해 국가 소멸을 설교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스탈린은 1930년 제16차 당대회에서, 그리고 1933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때 이른바 국가발전의 변증법적 공식, 즉 ‘국가의 소멸을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최대한 발전’이라는 공식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리고 제17차 당대회 때 그는 국가 소멸에 관해 당의 일각에서 번져가고 있던 주장을 단지 “머릿속 혼란”이라고 비웃은 적이 있었다(스탈린전집, 350-351). 이제, 1939년 3월 제18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은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적 교의가 불완전하며 불충분하다고 선언했다. “엔겔스의 명제가 과연 옳습니까?”라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진 다음 그는 스스로 답했다: “예, 옳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경우에만 옳습니다: a) 만약 미리 국제적 요인들을 배제하고서, 연구의 편의를 위해 국제적 환경으로부터 나라와 국가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단지 국내적 발전의 관점에서만 고찰한다면, 또는 b) 만약 사회주의가 모든 나라에서 혹은 대다수의 나라에서 이미 승리했고, 자본주의적 포위 대신 사회주의적 포위가 존재하고 있으며,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침공위협이 없고, 더 이상 군대와 국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렇게 해서 스탈린은 국가 소멸에 관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프롤레타리아트 국가의 운명에 관한 엔겔스의 공식이 일반적으로는 옳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자본주의의 포위상태에 있는 한 나라에서 겨우 승리한 사회주의라는 구체적 사례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맑스주의의 교의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가 적대계급들로 분열함에 기초해 등장했다. 스탈린은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그 역사적 의미를 전혀 달리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갖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에 대해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의 연설에 의하면, “사회주의의

승리” 이후 소연방에서 국내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억압기능은 없어졌다. 왜냐하면 국가와 인민 사이의 적대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착취가 폐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소비에트 국가의 국내적 기본과제는 “평화적인 경제-조직 활동과 문화-교육 활동”에 있었다. 군대, 징벌기관 및 보안기관 등과 관련해서 스탈린은 “그들이 자신의 칼날을 이미 나라 안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겨냥하여 나라 밖으로 돌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가 보기엔 소비에트 권력과 인민들 사이에 어떠한 적대나 대립도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국가는 계급국가였지만, 사회주의의 국가는 진정 인민의 국가이기 때문이었다.

공산주의 하에서도 국가는 존속할 것인가? 스탈린은 분명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만약 자본주의적 포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공위협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에 국가는 유지될 겁니다.” 스탈린의 아이디어는 제18차 당 대회에서 많은 연사들에 의해 반복, 강조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천재적 발전”이라고 칭송되었다.<sup>9)</sup> 소연방에서 사회주의는 국가가 되었으며, 사회주의에의 헌신은 곧 국가 발전에의 헌신을 뜻했다.

#### IV. 맺음말

스탈린주의의 언어는 일국사회주의론에서 시작된다. 그것의 역사적 근원은 10월혁명이었고, 그것이 발전함에 있어 토대가 되었던 것은 맑스-레닌주의적 역사전망이었다.

맑스의 교의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실현되는 혁명적 과도기가 존재한다. 공산주의 사회는 두 단계로 구별되는데, 최초의 낮은 수준의 단계가 곧 사회주의로서,

9) См.: Восемнадцатый съезд ВКП(б).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с.33-36.

여기서는 계급착취가 폐지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에 따라 공평한 분배를 받게 되면서 일정 수준의 불평등이 함축된다. 사회주의 발전에 따라 구현되는 최고단계의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로서 이때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사라짐과 동시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방식으로 인민의 사회적 삶이 영위되는데, 이 단계에 이르러야 계급독재기구로서 프롤레타리아트 국가가 소멸한다는 맑스-레닌주의적 역사전망은 스탈린에게 무오류의 과학이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역사발전 단계에 맞춰 설정된 전략과 전술이 그의 정치를 규정했다.

스탈린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이론적인 것을 고안해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볼코고노프에 동의하긴 어렵다. 스탈린은 단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계급투쟁, 혁명적 테러, 공산당 유일독재, 총체적 수색, 《전시 공산주의》에서 명확화된 단조로운 정신적 양식, 그리고 세계혁명 등에 관한 레닌의 가정과 생각들을 단지 《창조적으로》,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적용하고 발전시켰다”는 그의 어법이야말로 일국사회주의론의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치였다(Волкoгoнoв 1996, 1권, 175). 서유럽 혁명에 대한 기대가 무산됨으로써 궁지에 몰린 볼셰비키는 일국사회주의론에서 이념적 출구를 발견했다.

사회주의적 축적론과 계급투쟁의 격화 이론은 급속한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 즉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총노선의 추진에 있어 이론 축이 되었다. 농촌에서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희생을 겪고서 결국 1934년 사회주의의 승리가 선언되었다. 그 과정에 탄압과 강제만이 동원되지 않았다. 설득을 위한 선전과 선동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목격되면서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농민의 창발성이 고양되었다. 각종 구호와 함께 사회주의적 경쟁은 소비에트 인민들의 혁명적 열정을 소생시켰고, “돌격”, “기습”, “돌파”로써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화되었다.

사회주의에의 헌신이 인민의 미덕으로 강조되었고, 사회경제적 삶의 개선은 공산주의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화시켰다.

스탈린은 사회주의적 자력갱생을 제창한 후 10년 만에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완수를 선언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이론적 무지를 비웃었다. 소연방의 낮은 생산력은 사회주의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소비에트 사회는 맑스-레닌주의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단계에 부합하는 면모를 갖추었다. 이른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독재가 공산당 독재 형태로 확립되었고, 계급착취가 근절되었으며, 사회적 노동에 따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관계가 정착되었다. 말년에 트로츠키는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소연방에서 정치혁명이 일어나 스탈린정권이 붕괴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의 예견과 달리 소연방이 결국 독일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생산력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930년대 중반 스탈린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소연방의 새로운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자본주의적 포위 개념과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구호는 1930년대 중반 스탈린 언어의 핵심이었다. 그의 정책은 “소비에트 인민의 도덕적-정치적 단결”을 실현하고,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을 단련하기 위한 쪽으로 집중되었다. 파시즘의 위협에 대비하여 후방을 강화하려는 수령의 생각은 옛 반대파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고 대숙청을 통해 이른바 불순분자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었다.

스탈린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건설된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화신이었으며, 소비에트 인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지배한 정치적 원리이었다. 대숙청이 진행되고 있을 때 소비에트사회의 분위기는 암울하지 않았으며, 인민들이 오히려 희망의 노래를 구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대의 패러독스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10월혁명으로 해방된 소비에트 사회는 극도의 결핍과 엄청난 고난을 강요받았지만, 살아남은 소비에트 인민들은 맑스-레닌주의 및 스탈린주의의 언

어와 이론에 의해 고취되는 바를 믿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에 헌신했으며 수령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표현했다. 1941년 6월 독일군의 침공이 개시된 후에는 ‘국가가 된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증유의 고통을 감내했다.

스탈린의 이론은 극좌적 계급언어였으며, 초급진적이고 폭압적이었던 그의 정치는 이른바 계급독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것으로부터 발전한 소비에트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경험과 세계혁명에의 의지는 자본주의적 지배에 도전하는 세계 노동운동세력들에 이론적, 실천적 모범을 제공하며 그들을 고무했으며,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들에 사회정책적 진보를 이루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지금 스탈린주의의 재현 가능성은 없다. 스탈린이 복권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스탈린주의와 소비에트 러시아가 현재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침착한 숙고와 논의는 소비에트학에서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계급사회인 한 사회주의는 사회 밖이 아닌 사회 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 Ленин В.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레닌전집, 제5판). Москва.  
Сталин И.В. *Сочинения*(스탈린전집 제1-16권). Москва.  
Бухарин. Н.И. 1988,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Москва.  
Волкогонов Д.А. 1996, *Семь вождей*. Москва.  
*Восемнадцатый съезд ВКП(б).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ёт.*  
1939, Москва.  
*Голод 1932-1933 годов(Сб статей).* 1995, Москва.  
*Документы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Из истории деревни накануне  
е и в ходе коллективизации 1927-1932 гг.* 1989, Мос  
ква.  
*КПСС в резолюциях и решениях съезд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п  
ленумов ЦК* т.5. Москва.  
*Реабилитация.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30-50-х годов(Сб ма  
териалов).* 1991, Москва.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95, No2, No11-12.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1994, No2,  
*Источник* 1995, No1.  
Montefiore, Simon S, 2004, *Stalin: The Court of the Red Tsar.*  
NY: Knopf.  
Murphy, David E, 2005, *What Stalin Knew: The Enigma of  
Barbarossa*. New Haven: Yale Univ. Press.  
Radzinsky, Edvard, 1997, *Stalin: The First In-depth Biography  
Based on Explosive New Documents from Russia's  
Secret Archives*. NY: Anchor.  
Service, Robert, 2005, *Stalin. A Biography*. London: Macmillan.

Stalin's Language and Politics:  
Theories and Tactics of Socialism in  
One Country

Lee, Wan-jong  
(Kookmin University)

Abstract

Joseph Stalin is one of the most notorious figures in history. In his years of power from the mid-1920s until his death in 1953, he personified the Soviet communist order. The October Revolution of 1917 in Russia had given rise to a one-party, one-ideology dictatorship that served as a model for the transformation of societies across a third of the globe's surfa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Although Lenin had founded the USSR, it was Stalin who decisively strengthened and stabilized the structure. Without Stalin, the Soviet Union might have collapsed decades before it was dismantled in 1991. Stalin was not just a bureaucrat., he was a man driven by Marxist ideas. Its general assumptions were fashioned by him into politics

conforming to his despotic inclinations. The political strategies and tactics of Stalin sprang from his practical calculations and his Marxist worldview.

Marxism was a guiding philosophy throughout his political life. His theoretical innovations in ideology were crude developments of Marxism-Leninism. The innovations arose from political self-interest more than intellectual sincerity. Nevertheless, his own language and theories not only rationalized his politics well but also forced Soviet people to devote themselves for "the socialism in one country" and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Keywords** : Stalin, socialism in one country, language, politics